

전국 1호 광주 전교조 30돌 “과제 산적”

1989년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전국 시·도지부 1호로 출범한 광주지부는 그동안 촛지 거부와 부교재 채택로 근절, 일제고사 폐지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지만,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풀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합법화 이후 조합원과 분회가 급증하면서 양적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정치적 성향과 이익집단화 경향에 대한 안팎의 논란도 여전하다.

3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에 가입된 광주지역 초·중·고 교사는 4000명 안팎으로, 1999년 7월 최초 합법화 당시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분회 결성도 활발히 이뤄져왔다. 합법화,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130여명이 해직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지난 30년의 성과는 적지 않다. 우선 촛지 거부 운동을 들 수 있고, 부교재 채택과 각종 세금 모금 없애기, 운동장 애국조회와 중앙 현관 통로 이용금지 폐지, 어린이신문 강제 구독과 강제저축 없애기, 학교운영비 제정, 학생 인권조례 제정, 일제고사 폐지 등 경쟁교육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혁신학교 도입,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0교시와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 학습형 현장실습 강화, 4·16과 5·18, 통일교육, 학생의 날 계기수업 등도 교육적 성과로 꼽았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당장 법외노조 투쟁이 발등의 불이다. 1999년 합법화된 지 14년 만인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이후 7년째 법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30주년을 맞아 “슬픈 생일”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역 24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였던 기간은 754일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그 기간이 더 길어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조 역할에 주력한 나머지 참교육 운동단체로서의 본연의 모습에 소홀한 건 아니냐는 지적과 교육자들이 사회 참여를 통해 현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 시대적 요청이라는, 우선 순위를 둘러싼 가치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신규 교원수 감소와 자연퇴직하는 교원 증가로 조합원수가 줄어드는 추세 역시 전교조로서 내심 부담스런 대목

조합원 4000명 안팎 창립 당시 5배 가량 증가 촛지 거부·성금·애국조회·일제고사 등 폐지 법외노조 갈등·학교 밖 활동·조합원 확보 고민

이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즉 가르치고 배우는 권리와 권한의 상호 침해가 해마다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어떤 가치를 중시할 지,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와의 공존과 상생도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다.

김병일 광주지부장은 “교사도 노동자고 교사의 양심으로 가르치겠다고 선언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고, 교육적 사회적 성과도 많지만 법외노조와 등 아픔 또한 적잖다”며 “학교 밖 사회 참여와 학교 안 교육 활동 집중 간에 균형과 교권 학생인권 모두를 중시하는 학교문화 정

착을 위해 보다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오는 5일 오후 지부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축하미팅을 열고, 광주지부 문예단 창작극, 뮤지컬 ‘극한직업 열혈교사’, 락밴드 ‘타카피’ 공연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89년 창립 당시 힘을 보태준 제자들의 자녀 14명에게 창립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원로교사들이 장학증서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열린다.

조인호 기자



돼지열병 유입차단 총력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3일 경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중국발 여객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농축산물반입을 검역하고 있다.

포스코, 사망사고 잇따라...노동계 “외주화가 부른 참사”

포스코 제철소에서 직원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3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발생한 사고는 원장인 포스코가 기본적인 안전점검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일어난 중대재해”라며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함께 정기적인 노사합동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를 막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주화된 위험작업과 사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

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 38분께 전남 광양시 포스코 제철소 내 니켈추출 설비인 포스넵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넵장비 협력업체 직원 서모(62)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작업장에 있던 포스코 소속 직원 김모(37)씨는 폭발 당시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원철 철의 산화물을 환원시켜 만든 쇳가루를 저장하는 탱크를 보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발로 저장탱크는 형체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고, 지붕을 뚫고 날아간 모더는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

기도 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재사망 사고로 5명이 숨져 노동계가 신장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공동 3위에 뽑혔다. 올해도 지난 2월 포스코 포항제철 생산기술부 소속 한 근로자가 제철부두 한 하역기에서 인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조는 “정비부문을 2, 3차 하청의 다단계구조로 외주화한 결과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양한 유해물질과 가스가 발생하는 제철소에서 위험한 외주화는 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평영=김승호 기자

인터넷 중고 판매 사기 2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최신형 블루투스 이어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B(20·여)씨 등 17명에게 2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혐의로 출소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물품 사진을 도용해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고 계좌 개설이 간편한 인터넷 은행을 통해 피해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B씨 등 피해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채팅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은행 계좌가 SNS 채팅 계정과 연동해 손쉽게 입·출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피해 예방 신고사이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형업소 종업원 집단 폭행 조폭 9명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유형주점 종업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A(28)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같은 조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월21일 청주시 청원구 한 유형주점에서 종업원 C(28)씨를 때려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업소 내 폐쇄회로(CC) TV 본체를 떼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는데 비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병원 침대에 불 지른 50대 남성 체포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침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3일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박모(5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술을 마신 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끌려온 뒤, 난동을 부리다 리프트를 꺼내 침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명피해는 없었고 병원 침대와 시트 일부만 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박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방화 피해 수준이 침대와 시트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방화와 관련한 다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있는 주거물·건조물·가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불로 태웠을 때 적용되는 혐의를 말한다.

대학병원서 척추수술 받던 70대 숨져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던 70대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72·여)씨가 척추 수술을 받던 중 숨진 것과 관련, 의료진 측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부러진 척추에 지지대를 박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으나, 수술 도중 숨졌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들이 실수로 동맥을 손상해 A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환자는 이미 수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부위가 약해진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는 수술도중 과다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